

# 순천시 '바가지 요금 퇴치' 음식·숙박업 합동 단속

### 정원박람회장 인근 연향 3지구·순천역 일원 등 178개 점포 점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한 달여 만에 300만 관람객을 돌파한 가운데 순천시가 5월 특수를 노린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순천시는 11일까지 사흘간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8일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황 파악 및 현장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단속을 벌이는 지역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 3지구와 오전지구 순천역 주변, 조례동, 연향동 일원이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기간 숙박업소 54곳, 음식

점 72곳, 개인 서비스 점포(PC방 등) 52곳 등 178곳을 대상으로 요금 표시(사전요금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178개 점포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태훈 순천시 미래산업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합동 단속반은 경제진흥과, 관광과, 식품위생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순천시 소속 물가모니터요원과 식품위생감사원도 동참한다. 이들은 바가지요금 징수 여부와 식품·침구류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합동반은 이들 업소에 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고객 불편사항 파악도 함께할 예정이다.

순천시 '시장살'에는 하루에 한 번꼴로 숙박·음식점 요금에 대한 민원이 오르고 있다.

일부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거나 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음식값이 더 올랐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정원박람회는 10일 오후 2시 22분께 300만 번째 손님을 맞으며, 개막 40일 만에 3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순천지역 20개 숙박업소를 표본으로 조사해보니 주말은 82%, 주중은 49%의 투숙률을 나타냈다.

순천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정원박람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만큼 바가지요금으로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합동 단속반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요금 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고흥군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합시다"

### 전남 6개 시·군, 15개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고흥군이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전남지역 6개 시·군의 15개 농축협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광양, 곡성, 고흥, 보성, 강진, 영암지역 농·축협 조합장이 뜻을 모았다. 소속 임직원 900여 명이 상호 지역에 고

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보성농협(조합장 문병완) 임직원과 농축농협(조합장 정종연)·풍양농협(조합장 송영철) 임직원이 각각 고흥군과 보성군에 기부했다.

또 광양원에농협(조합장 김영배) 임직원과 득량농협(조합장 이계욱) 임직원이 팔영농협(조합장 정영만) 임직원과 교차 기부했다.

영암축협(조합장 이맹중)은 고흥축협(조합장 김종완)과, 옥과농협(조합장 구정훈)은 고흥농협

(조합장 고중석)·두원농협(조합장 신신석)과 상호 기부했다. 강진한들농협(조합장 조명언)과 거금도농협(조합장 추부행),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과 흥양농협(조합장 조성문)이 서로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발전 협력을 통해 전남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뜨거운 애乡심으로 함께해준 농축협 조합장과 임직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 웅천동 망마공원 연면적 6700㎡ 280억 투입 2026년 개관 목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정부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여수시는 시립미술관 건립안이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상반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립미술관은 웅천동 망마공원 1만5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7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건립할 방침이다.

미술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교육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서면심사를 벌이고 3월22일 미술관 건립 부지 현장 평가를 벌였다.

지난달 28일 최종 심사를 벌인 결과 여수시립미술관 신축 사업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



오는 2026년 개관 목표로인 여수시립미술관 조감도. <여수시 제공>

사를 거친 뒤 건축·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미술계를 포함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시립미술관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시립미술관이 여수시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여수세계섬박람회 시민설명회 기본계획 수립...내일 여수문화홀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종합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종합기본계획이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12일 여수문화홀에서 기본계획 설명 및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계섬박람회 시민설명회는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안 설명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설명회 의견서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여수시-여수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반영을 거쳐 오는 6월 종합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설명회가 박람회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여수 제2의 도약과 함께 섬의 가치와 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구례군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 대상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 수상자들. 맨 왼쪽이 대상을 수상한 양다원 주무관.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최근 열린 2023년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지적업무 분야 대상을 받았다.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는 전남 22개 시·군, LX광주전남본부 등이 지적행정 및 지적 재조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지적 분야 대상을 수상한 양다원 구례군 주무관은 "드론을 활용한 지목변경 업무처리 방안"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2020년 수해 지역 정보공간정보 플랫폼 정보와 상이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든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서 지목변경을 한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전국 지적세미나' 연구 과제로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방향, 시도 실무동향, 학계 연구결과 등 최신 정보 공유 및 업무 연찬과 더불어 토·지적 행정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우수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순천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 '나도 강사' 10명 신규위촉...행정보고 공유·노하우 강의

순천시가 공직자 교육을 위해 '나도 강사' 10명을 신규 위촉했다. 시는 총 19명의 강사 인력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나도 강사'는 순천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직문화와 복·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배·동료 공무원이 강사가 되어 내부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사는 주로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부터 실무자인 주무관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8기 들어서며 공무원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지난해 9명의 '나도 강사'가 5개월간 활약했다.

강사들은 총 22회에 걸쳐 716명의 직원을 교육

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 알짜배기 노하우 공유 등 열정적 강의로 좋은 평을 받았다.

동료들의 열정 있는 강의는 역량향상과 동기 부여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되기도 했다.

시는 더 많은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에 따라 '나도 강사' 10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들은 '공사 분야 행정절차와 하자 유형'과 같은 직무 분야 8개 과정과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상식'과 같은 소양 분야 2개 과정에서 노하우와 지식을 나눠줄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의 표준을 만들고 일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주말 고흥 녹동항 수놓는 '드론쇼'



야간 드론쇼 장면. <고흥군 제공>

### 13일~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13일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린다.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알리고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고흥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야간 관광 특화 상품이다.

13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녹동항 바다정원 주 무대에서 거리공

연과 함께 드론쇼가 펼쳐진다.

드론 500대를 활용한 군집 비행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녹동항 드론쇼는 매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고흥군 관계자는 "매주 토요일 녹동항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 드론쇼 상설 공연을 알차게 준비돼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